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동행투어 '호응'

군산시, 시간여행마을 도보 해설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만족도 높여

군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2026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동행투어'가 관광객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행투어'는 군산 시간여행마을 일원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해설 프로그램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다. 단,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투어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앞에서 출발하며,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운영시간에 맞춰 현장에 집결하면 1명이라도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운영 코스는 △근대문화유산 중심의 '모던로드(A코스)'와 △군산의 생활문화와 근대 흔적을 함께 둘러보는 '타임로드(B코스)' 코스로 각 2회씩, 총 4회 운영하고 있다.

'모던로드'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호남관세 박물관, 장미갤러리, 근대미술관, 근대건축관, 진포해양테마공원 등을 둘러보는 2시간 코스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총 2차례 운영한다.



군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2026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동행투어'가 관광객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타임로드'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호남관세 박물관, 초원사지관, 신흥동 일본식 가옥, 말랭이마을, 동국사 등을 둘러보는 2시간 30분 코스이며, 오전 10시와 오후 1시 30분, 총 2차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110일간 운영한 결과 총 2,619명이 투어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말 이용객 비율이 전체 이용객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평일에도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김민호 기자

남원시, 춘향제 특집 방송 전국 송출

'KBS 1TV 국악한마당 특별방송' · '제53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방송

남원시는 제96회 춘향제를 기념해 제작된 KBS 1TV 국악한마당 특별방송과 '제53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이 전국 및 지역 시청자를 대상으로 송출된다고 밝혔다.

먼저 KBS 1TV 국악한마당 춘향제 특집 기획 '전통의 숨결'은 오는 30일 오후 12시 10분에 방송, 이번 특집은 지난 5월 춘향제 기간 중 남원시 관현루원 앞 특설무대에서 녹화를 마쳤으며, 남원의 전통문화와 국악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무대에는 국악인 남상일, 박애리, 김다현, 안

나예이츠를 비롯해 서의철, 김한샘과 박성호&거꾸로 프로젝트 등이 참여해 남원 국악의 깊이와 전통의 멋을 선보였다.

특히 제52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명창부 대상 수상자인 서의철과 제5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무용 일반부 대상 수상자인 김한샘 등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이 배출한 국악인들이 전국 방송 무대에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방송은 오는 6월 7일 오후 1시 30분 KBS 1TV를 통해 방송,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은 전국



규모의 대표 전통국악 경연대회로 관소리·기악·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국악 인재들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우리 전통예술의 계승과 국악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방송은 제96회 춘향제의 문화적 가치와 남원이 지닌 국악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농악 상설극관' 팔도농악 초청공연 펼쳐진다

고창군이 29일 오후 7시 고창농악전수관에서 '생생한 극관의 현장! 고창농악 상설극관' 첫 공연을 개최한다.

공연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2026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生生고창 국가함께'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5월부터 7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상설극관은 고창농악과 함께 전국 각지의 특색 있는 농악을 초청해 선보이는 공연으로, 전

통 농악의 흥과 멋을 군민과 관광객이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첫 공연인 5월 무대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원주매지농악보존회가 초청돼 고창농악과 함께 신명나는 공연을 선보인다. 이어 6월에는 청주농악보존회, 7월에는 부산농악보존회가 참여해 다양한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고창농악전수관 야외마당(우천 시에는 실내 대극장)에서 진행되며, 지역민과 관광

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북크리에이터 공백 작가 초청 '북킵리스트' 강연

전주시는 지난 27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북크리에이터인 공백 작가를 초청해 '북킵리스트' 강연을 진행했다.

공백 작가는 구독자 6만5000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공백의 책단정'을 운영하며 다양한 독자 콘텐츠로 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그

는 또 △휴식의 말뚝 △당신을 읽느라 하루를 다 썼습니다 등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공백 작가는 책으로 채워진 '공백'을 주제로 책에서 얻는 영감과 독서의 경험을 소개하고,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독자와 함



책 읽고 나누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민들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권희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9부 '강패와 무덤' (1)

강용대가 죽었다고!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배순옥으로부터 박명희와 강남준의 스토리를 듣는 내내 동식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동식을 놓고도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버렸다는 생각에 그들을 증오했고 미워했던 자신이 한 없이 부끄럽고 또 미안했다.

불운과 천형 속에서 사람을 꽃피웠던 그네들의 절절한 사연 안에서 맺어진 열매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동식을 울적하게 만들었고 그네들의 아픔이 너무도 가슴을 후벼팠다.

순옥도 이야기를 하는 내내 손수건을 다 젖게 할 만큼 울었다. 동식은 눈물을 거두고 잠시 마음을 수습한 다음 순옥을 바라봤다.

"그분의 무덤은 어디에 있고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연기마을 뒷산에 공동묘지가 있어. 거기에 있지. 내가 가끔 가서 살펴보는 하는데 요즘에는 통 가보질 못했어."

동식은 순옥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나중에 또 찾아뵙겠다는 말을 하고 집을 나오는데, 순옥은 못내 아쉬운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명희의 무덤에 가려거든 꼭 연락해서 같이 가자고 말했다. 대문 밖까지 나와 동식을 배웅했다.

박명희가 살아 있었다면 순옥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 또 가슴이 울컥했다. 동식은 차에 올라타자 담장 박명희의 무덤에 가고 싶었다. 그렇게 미워했고 경멸했던 어머니를 알게 되었으니 찾아가서 실컷 후회하듯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것일까.

동식은 바로 차를 출발시키지 못했다. 순옥으로부터 들었던 박명희와 강남준의 사연이 흥수가 되어 마음의 독을 훌쩍 털어와 동식 앞에 다시 흘러넘쳤고 자연스럽게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다.

한참을 눈물을 쏟으며 운 뒤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를 몰았다. 박명희의 묘가 있다는 연기마을로 가볼 예정이다. 배순옥이 같이 가자고 했지만 먼저 혼자 가서 박명희를 보고 싶었다.

차를 막 출발시키는데 전화가 왔다. 서울

후배 서중훈이었다. "형님,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강용대가..... 죽었습니다요."

"뭐라고! 강용대가 죽었다고!" 동식은 급히 차를 잣길에 세웠다. 강용대가 죽다니. 강정근에게 사연을 들어 이제는 친숙하기까지 한 종대장 강용대가 죽다니.

"왜 죽었어? 누가 죽인 거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요, 형님."

충격 때문인지 동식은 서중훈에게 강용대가 죽은 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지도 않고 전화를 끊고는 한동안 뉘이 나가서 차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박창수가 죽었다. 이번에는 강용대가 죽었다. 두 사람은 결코 동식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다. 두 사람은 동식의 부모인 강남준과 박명희에게 치명적인 운명을 안겨다 준 장본인들이다.

사연을 진작 알았다면 동식은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감응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죽었다.

누가 죽인 것일까. 동식 말고 다른 누군가가 사연을 알고 먼저 손을 쓴 것일까. 붉은 여우가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강동식을 의심하지 않을까? 강용대를 강동식이 죽었다고 의심하지 않을까?

동식은 차를 출발시켰다. 차는 고창읍으로 향했다.

'사실 만큼 강한 힘은 없다. 동식이 박창수와 강용대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 사실이 동식에게 자신감을 줬고 붉은 여우를 뿔뿔히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줬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